

숨은그림찾기 < 118 >



찾아보세요 성냥개비, 서클류, 아이스크림, 고추, 칫솔, 열대어, 만년필, 슬리퍼, 다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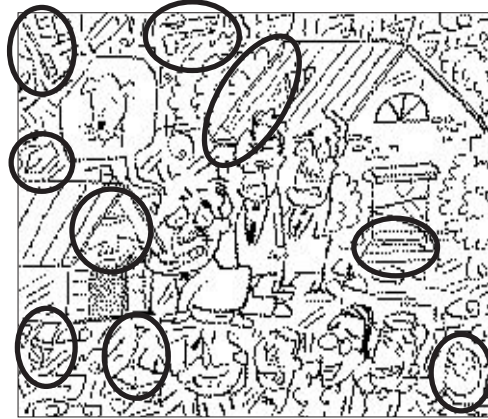
돈이 뭘지...

어느 날 딸이 회사 사장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는 회사 사장에 달려가 먹살을 잡고 죽일 기세를 보였다. 그때 사장이 빌며 말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일 따님이 아들을 낳으면 5억원을 주고, 딸을 낳으면 3억원을 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유산이 됐을 경우는 한번 더 기회를 줄 거요?”



지난주 정답

하마, 아이스크림, 열대어, 펜촉, 양장주, 못, 담배피이프, 화살, 칫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관중 <순천시 서면 선평리> 이태현 <광주시 서구 농성 2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83년 4월4일, 美 우주왕복선 6번째 비행 성공

1983년 4월 4일 가장 와이즈와 조종사 보브코 그리고 전문가인 머스그레이브·피터슨 등 4명의 승무원을 태운 우주왕복선 켈린저호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미국 우주 왕복선의 6번째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미국은 1981~82년에 걸쳐 제 1호 유인 우주왕복선인 컬럼비아호의 4차례 실험비행(STS 1~4)과 1차례의 실용비행(STS 5)을 성공리에 끝낸 후, 제 2호 우주왕복선인 켈린저호의 비행을 계획했다.

켈린저 호는 1차 비행(STS 6)을 위해 4월 4일 케이프케네디 우주센터를 출발한 뒤, 4월 7일 승무원 머스그레이브와 피터슨이 4시간의 우주유영에 성공했다.

이들은 우주유영은 비행 임무 중 하나로 새 우주복의 성능과 궤도상에 있는 인공위성의 보수를 위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4월 9일 켈린저호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하면서 5일간의 우주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해 6월 18일에는 제 2차 비행(STS 7)이 시행됐다. 2차 비행에는 앨리 K. 라이드가 탑승하면서 우주를 여행한 첫 미국 여성으로 이름을 올렸다.

1957년 소련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 정복에 대한 인류의 꿈을 처음으로 현실화 시켰다. 그리고 1961년 소련의 보스토크 1호가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



1983년 4월 4일 켈린저호에 승선해 미국 6번째 우주 왕복선 비행에 성공한 피터슨·와이즈·머스그레이브·보브코(사진 왼쪽부터).

린을 태우고 우주로 향했다. 1969년에는 미국의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첫 걸음을 내딛은 우주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오는 8일 오후 8시 16분 27초,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한다. 필기·신체 검사와 정밀 검사 등 치열한 선발과정을 뚫고 최종 선발된 이소연(여·29)씨는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지난 2006년 3만 6206명의 국민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다. 그리고 오는 8일 이소연씨는 5천만 국민의 열망을 담고 러시아 유인 우주선 소유즈호를 타고 우주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4월 19일 지구로 귀환해 한국의 우주 역사를 새로 장식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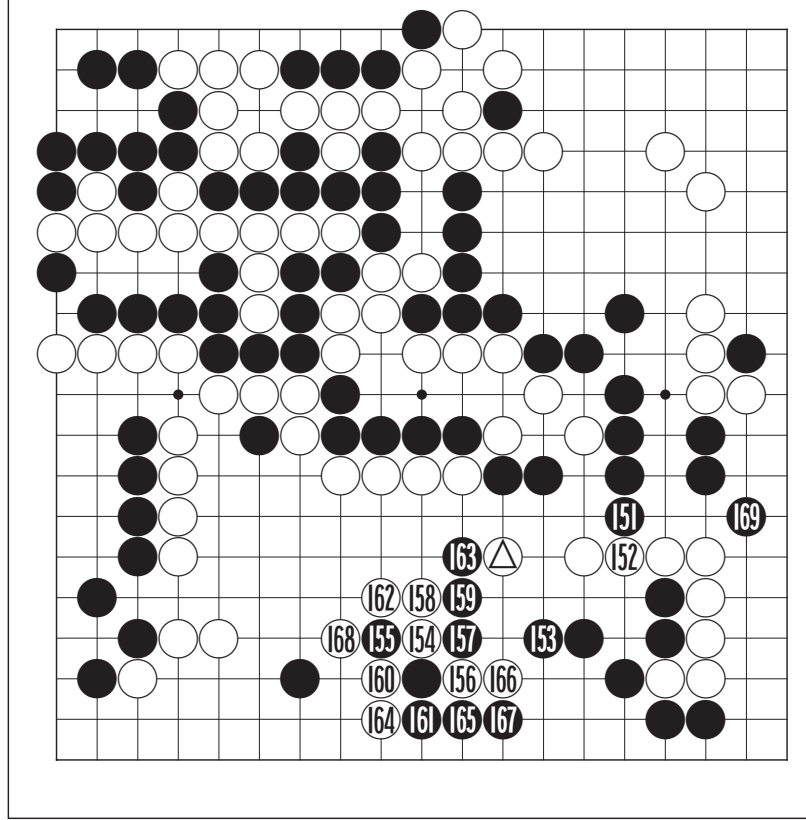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기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 되어 간편하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좀 더 멋진 자신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 ▲셔터 누를 때는 숨을 참자. 사진 찍을 때 숨을 참고 팔은 가슴 쪽으로 붙여 자세를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은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얼은 숙지하자. 오토 모드로 촬영하면 큰 문제없이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는 비싼 카메라를 100%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숨어 있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근사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두 손으로 찍는다. 요즘 나온 카메라는 무게가 많이 가벼워져 한 손으로 들고 찍으면 흔들림이 많습니다. 두 손으로 찍으면 안정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실수로 카메라를 떨어 뜨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음 2월 26일 壬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백 △ 한데도 불구하고 백 154로 붙여 더욱 더 체질질을 해내고 있다. 156으로 이단 갖힌 것이 백집이다. 이렇게 되면 158까지는 예정된 수순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흑 159때 가지수군의 손길이 잠시 멈춰 선다. 흑 159는 '참고도'처럼 백 1로 받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흑 2로 몬다 이를 4로 잡게 되는데 이것은 흑이 이득이다. 물론 이렇게 받아두어도 백의 우세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강군은 즉각 160으로 반발하여 168까지 실리를 챙겨버린다. 흑 169로 공격당하여 백 대마가 위험해 보이는데 살 자신이 있다는 것일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국, 정관장배 우승 파란불
이민진 5단이 제6회 정관장배 세계 여자바둑최강전 본선 11국에서 중국의 강호 탕이 2단을 꺾었다. 이민진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에서 탕이를 214수 끝에 불계로 누르고, 한국팀의 대회 2연패 가능성을 밝게 했다. 한·중·일 3국의 여류기사 5명이 출전해 연습전 방식으로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이날 현재 생존자는 한국 박지은 9단·이민진, 중국 루이나웨이 9단, 일본 가토게이코 5단 등으로 한국이 다소 유리해졌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60초 초읽기 1회이며, 상금은 우승 7천500만원 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

굿모닝 잉글리쉬 <1130>
How long have you lived in Gwangju?
광주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A: How long have you lived in Gwangju?
B: Three years.
A: Do you like it?
B: Yah, it's all right.
A: 광주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B: 3년인데요.
A: 맘에 들어요?
B: 그럼요, 좋아요.
* 여기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How long have you been here?
*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오하오우 니혼고 <1130>
何かご傳言(でんごん)でも...
뭔가 전할 말씀이라도...
A: もしもし、私は東京(とうきょう)商事(しょうじ)の田中(たなか)とうとうしですが 山田部長(やまだ)いら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
B: 申(もう)し訳(わけ)ございません。あいにく山田部長(やまだ)はただいま席(せき)を外(はず)しております何かご傳言(でんごん)でも...
A: じゃ、東京商事(とうきょうしょうじ)の田中(たなか)から電話(でんわ)があったとお傳(つた)えください。
B: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A: 여보세요, 저는 동경상사의 타나카라고 하는데, 아마도 부장님 계십니까?
B: 죄송합니다. 때마침 아마도 부장은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뭔가 전할 말씀이라도...
A: 그럼, 동경상사의 타나카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B: 예, 알겠습니다.
* 席(せき)を外(はず)す: 자리를 비우다.

니하오 쑹구위 <107>
在河边喝水。
강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A: 你画什么呢?
你画什么呢?
B: 我画一匹白马。
我画一匹白马。
A: 白马做什么呢?
白马做什么呢?
B: 白马在河边喝水。
白马在河边喝水。
A: 马是干什么的?
马是干什么的?
B: 马是吃草的。
马是吃草的。
A: 马是吃草的?
B: 对, 马是吃草的。
A: 马是吃草的?
B: 对, 马是吃草的。

한자 이야기 <71>
子路負米(자로부미)
아들 자, 길로, 짐질 부, 쌀 미
자로부미(子路負米)는 자로가 쌀을 짊어지다는 뜻이고, 백리부미(百里負米)는 자로가 백리나 떨어진 먼 곳으로 쌀을 진다는 뜻으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효성이 지극함을 비유한다.
자로(BC543~BC480)는 공자보다 9살 적은 최연장자의 제자로 '논어'에 등장한다. 공자에게 입문(入門)하기 전에는 무리한(無類)으로 성격이 좀 거칠었지만, 소박한 인품으로 용기가 있어 가르침을 받으면 실천에 옮기는 인물이었다. 공자는 그에게 도의(道義)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용기가 됨을 강조하였다. 하루는 자로가 공자에게 말하길, "집이 가난하여 부모님을 모실 때에는 봉록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관리가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섬길 때 항상 명아주잎과 콩잎과 같은 나쁜 음식을 대접하여, 직접 쌀을 백리 밖에서 저 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초(楚)나라의 관리가 되어 호화롭게 살면서, 명아주잎과 콩잎을 먹고 직접 쌀을 지고 가기를 원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마른 물고기를 묶어 놓으면 썩어가듯, 두 양친의 수명이 흰 말이 달려 지나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순간 일 뿐입니다"하였다. 이에 공자가 감탄하며 "자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힘을 다해 섬기고, 죽은 후에는 그리움을 다하는구나"라고 칭찬하였다. (孔子家語)